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3과 불변의 말씀

[마5:18; 눅16:17]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눅16:17**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1.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영원하며, 그의 행사도 영원하다.

[벧전1:25]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40: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영영히 서기 때문이다. 선다는 말은 야쿰(**קַיָּוֶה**)인데, 쿼(**קָוָה**)의 미완료 형이다. 이 말에는 성취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말씀이 영원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영영히 존재한다는 의미 외에 그 성취가 영영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마5: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도 사40:8과 같은 의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시대를 따라 변하게 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실 때부터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하나님이 주실 때 의도하신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야 한다. 자기 당대에 문화와 사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 왜곡해서는 안 된다. 소위 해석 문제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해석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창40:8]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2. 성경 연구의 편의를 위한 장치들

성경 연구의 편의를 위한 첫째 장치가 장과 절을 나누는 것이다.

구약성경의 절은 회당 예배 때 읽기 위하여 일찍 절이 나누어져 있었다.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 때에 모세 오경을 때 안식일 한 사람이 3절씩 7 사람이 낭독하였다. 이렇게 읽으면 3년에 5경을 한 번 읽는다. 이것을 바라샤라고 하며 또 9절씩 7 사람이 낭독하여 일년에 5경을 다 일도록 한 것을 세다림이라 하였다. 또 테레샤라고 하여 오경 외에 다른 성경도 읽도록 해 두었다. 그래서 절을 나누었다. 그러나 장을 나누지 않았었다.

구약과 신약의 장을 나누는 사람은 스테픈 랭톤(Stephen Langton 1150(?)–1228 7월 9일) 켄터베리 대주교이다.

신약성경의 절수는 로베르 1세 에스띠엔느(Robert I Estienne 1503–1559)가 나누었다. 1551년에 그가 파리에서 제네바로 종교적 망명을 가면서 나귀 위에서 성경 절을 나누었다고 한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읽으면 때때로 문단과 맞지 않게 절이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된다. 그는 이렇게 망명가서 그

해에 바로 절을 구분한 신약성경을 제네바에서 출판하였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성경의 장과 절이 나누어진 성경을 다 사용하고 있다. 이런 수고를 한 신앙의 선배들의 노력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에스띠엔느는 프랑스 본명이고, 라틴어로는 스테파누스(Stephanus)로 알려져 있다.

3. 신약성경에 절이 없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

구약성경에는 “절 없음”이라는 곳이 없지만 신약성경에는 “(00절 없음)”같은 말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 괄호 옆에 숫자가 붙어 있다. 이것은 성경 본문 밑에 여백인 난하(欄下)에서 괄호 옆에 붙은 번호와 같은 번호를 보라는 기호이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본에 00절 …… 이 있음”이라는 말이 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21이 ¹⁾(없음)이 되어 있고, 난하에 “1)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신약성경에 이런 구절이 13곳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마17:21, 마18:11, 마23:14, 막9:44, 막9:46, 막11:26, 막15:28, 눅17:36, 눅23:17, 행8:37, 행15:34, 행28:19, 롬16:24 등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사본 문제이다.

옛날에는 인쇄한 책이 없었다. 그래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한다. - 한 사람이 글을 읽고 여러 사람이 그 읽는 소리를 듣고 받아 적었다. 그 중에는 빨리 적는 사람도 있고 좀 느리게 적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받아 써서 만들어진 성경을 사본(寫本)이라고 한다.

그런데 읽는 사람이 한 줄을 다 읽고 다음 줄로 넘어갈 때에 다음 글머리에도 같은 말이 나오게 되면 느리게 적는 사람은 글머리가 같은 다음 줄을, 같은 글머리 다음에 적게 된다. 이렇게 된 사본은 빨리 적은 사람의 사본보다 한 절을 빼먹게 된다. 그래서 후대에 사본을 연구하여 성경 본문을 완비하는 학자들이 최대한으로 사본을 모아다가 다수 사본의 본문을 원내용으로 삼고 그러나 숫자가 적은 사본이라도 다수 사본에 없는 절수가 있으면 그것을 원 내용으로 삼은 데는 (21 없음)이라고 쓰고 난하에 다른 사본에 있는 절수의 내용을 적어 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오늘 우리는 모든 사본에 있는 내용을 다 읽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4. 관주(貫珠)에 대하여

관주(貫珠)는 “ 꿰관 ” “ 구슬 주 ” 자로서 “ 꿰어놓은 구슬 ” 이라는 뜻이다. 성경 관주라는 말은 성경 구절들을 꿰어놓은 구슬처럼 연결해놓았다는 뜻이다. 영어로는 그냥 Reference이다. 이것은 참고라는 뜻이다. 관주가 아주 좋은 참고이지만 그냥 참고 이상이라고 생각된다. 관주라는 표현이 Reference보다 좋아 보인다. 관주는 그 성경절과 평행 되는 의미를 가진 절을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관주에는 단어 관주. 문맥 관주. 사상 관주 등이 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로 단어 관주이다.

이것을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 종교개혁 이후 성경을 절대적인 영감과 계시로 믿는 순수한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만들기 시작하여 집대성된 것인데, 누가 이것을 집대성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관주는 성경으로 성경을 찾아 연구하는데 아주 요긴한 것이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구슬을 꿰듯이 성경구절을 꿰 수 있도록 배열해 놓은 것이다.

성경에 적힌 기호를 따라 찾아보면 같은 내용의 말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른 말

로 하면 관주는 성경에 기록한 성구사전인 셈이다.

한글 개역판 관주성경을 예로 들면 한글 자모 ㄱ, ㄴ, ㄷ 으로 기호가 주어지고, 그 기호 옆으로 적힌 성경 절수를 찾으면 그 기호가 적힌 성경구절과 같은 내용의 구절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성경절수 앞에 ‘보’ ‘인’ ‘비’ 등의 글자가 있는데, ‘보’는 보라는 뜻이고 ‘인’은 인용했다는 말이며 ‘비’는 비교해 보라는 말이다. 이런 말이 적혀 있지 않는 관주는 같은 내용의 말이 있다는 것만을 가르친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만을 들고 성경 연구를 할 때 엄청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5.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본질적인 것을 뜻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존재, 성품, 행사 등등이 언제나 동일하다는 뜻이다.

[약1:17]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6:17,18] 하나님은 약속을 기점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 이것이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이 책에 약속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다.

[마5: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약속한 사실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한 사건이다.

[수21:43-4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시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44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망에 안식을 주셨으며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4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른 예는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이다.

[요13:19]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요14:29]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이 많다. 예언한 때로부터 많은 역사적 시간이 지나갔으며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증거를 역사는 제공한다. 이것은 다음에 장을 달리 하여 공부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역사의 종말 곧 시간의 끝이 이를 때를 아신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를 대하게 될 것이다.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자비와 인자와 사랑으로 일하시고 섭리하신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변덕이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

변함없는 믿음으로 종결의 때까지 걸어가야 한다.

[호6:4]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딤후2:13]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함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들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변덕이 심한 사람을 대조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우리의 변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신실하심에 바탕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종결의 때까지 승리의 행진을 하자.

[마7:24-27]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그분의 변함이 없으신 존재와 성품에 근거한다. 기록된 말씀의 불변성의 역사적으로 충분하고 확실하게 증거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을 넉넉히 신뢰할 수 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창조 때의 계획을 성취시키셨다.